

## 모든 能力과 實力을 動員하고 發揮하자

—1976年 IFLA 大會 서울 開催에 즈음하여—

韓國圖書館協會는 금년으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막 成年이 된 셈이다. 불과 몇명이 모여서 시작한協會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協會로 성장한 것은 장하고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成長過程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 분이 애써協會를 이끌고 나온 노력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는 이 기회에 그분들에게 敬意를 표하고 싶은 心情이다.

같은 길을 가는 圖書館인들이 모여 뜻을 같이하여 이룩한協會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共同 관심사인 圖書館 및 圖書館人의 發展을 爲하여 그 存在의 意義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각 分野에 있는 모든 圖書館인들이 같이 合心하여 우리들의 廣場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들 모두가 다같이 이룩해야 할 큰 課題라고 생각한다. 歷月이 가는 동안協會의 役員은 바뀌지만 圖書館인들의 活動舞臺 役割을 하는協會는 항상 변함없이 튼튼한 基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높히 사야 할 것 같다.

우리 나라 圖書館界는 아직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認定하는 事實이다. 圖書館界가 활발하지 못하면 圖書館인들의 活動舞臺도 좁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問題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圖書館人, 關係機關 그리고 一般社會가 다같이 圖書館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하고 圖書館의 必要性, 重要性을 認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問題는 이러한 後進性을 어떻게 하면 빨리 克服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協會의 基本課題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한다. 그러므로協會 會員들은 現場에서 일하는 司書나 教育機關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이나 다같이 우리들의 共同關心事를 놓고 合心하여 解決하려는 勞力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이것이 韓國圖書館의 發展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특히 1976년 6월은 우리들의 實力을 나타내어야 할 機會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 大會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韓國圖書館協會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앞길이 먼 감이 들지만 76년 서울大會를 기하여 우리도 남과 같은 隊列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우리들로서는 큰 成長이라 보아 흐뭇한감 마저 든다. IFLA는 해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總會 및 大會를 열고있다. 1976年 大會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은 IFLA 창립이래 東洋에서는 처음있는 歷史的인 決定이다. 東洋에서는 우리가 그 첫 테이프를 끊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은 韓國이나 韓國圖書館協會의 榮光뿐 아니라 全 東洋會員國들의 榮光이 되는 것이다. 이 機會에 大會를 서울로 誘致하는데 陰으로 陽으로 勞力을 아끼지 않은 여러 분들의 勞苦를 致賀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그들의 成功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IFLA는 1927년 Edinburgh에서 英國圖書館協會 創立 50주년을 記念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던 자리에서 15개국이 참여하여 發足하였다 한다. 設立目的은 各國 圖書館協會 相互間의 國際的인 協力を 통하여 圖書館學, 書誌學 및 圖書館에 관한 共同研究 및 調査와 理解增進을 도모하는데 있다. 創立된지 근 50년이 되는 IFLA는 그동안 많은 業績을 이룩하였고 앞으로의 課題도 山積해 있다고 본다. 現在 會員國은 97個國이며 616個 機關이 會員으로 加入되어 있다. IFLA는 UNESCO와 그 밖의 여러 國際機構와 긴밀한 協力を 취하고 있다.

1976년 6월이던 時日도 촉박한 감이 없지 않다. 問題는 어떻게 우리힘으로 큰 일을 치루느냐에 있다. 經濟的인 支援이 우선 큰 問題이겠지만 그밖에 해야 할 일이 한없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 機會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能力이나 實力을 등원하고 발휘하여 IFLA 서울大會를 훌륭하게 치루어야 하겠다. 韓國圖書館人의 본을 世界萬方에 보여주고 소개하는 機會가 될 것이다.

여러 會員의 參與로 숨은 實力을 과시하고 歷史的인 隊列에 參加하기 바란다.

李 鳳 順 (本會專務理事)